



1

인천, 세계적 바이오산업 중심 도시로 '비상'

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이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2022년도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0년 10월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승인을 비롯해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 2021년 7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인천시가 정부 지원을 잇달아 받으면서 바이오 업계에 절실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장기 목표의 실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2021년 바이오산업 육성 성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12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해 국비 2천500억 원을 확보한 점이다.

둘째,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실현을 위한 국비 70억 원 확보도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4월 3개 전략, 10개 과제로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가 공모한 2021년 산업 기반 혁신 구축사업에 신규 과제로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 장비 지원센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

셋째, 바이오 및 백신 공정 전문 인력을 위한 국비 28억 원 확보와 관



2



3

- 1 K-바이오 랩허브 유치 협력을 위한 인천시, 산·학·연·병 라운드 테이블
- 2 인천형 바이오혁신 클러스터 조성 비전 이미지
- 3 박남춘 인천시장



4

련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GMP 수준의 시설을 갖춘 바이오 공정 실습장 구축 및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연간 2천 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했다. 지난 11월부터 1회당 40명씩 120명을 목표로 전문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레드 및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천59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배양, 정제, 완제, 분석 등 바이오 공정별 전문 인력 120명, mRNA 백신 관련 제조공정 및 이론·현장 실무 교육 전문 인력 120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2년도에는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12개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요구서를 2021년 12월 초에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예비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이오 자원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은 인천의 바이오산업 장비, 기술, 인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총 3년간 사업비 36억 원을 편성해 바이오산업 자원 공유 시스템인 '인천 바이오 맵'을 구축하고, 코디네이터를 구성해 산·학·연·병·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사업 유치를 추진한다.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사업은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8개 업체를 선정해 2차 컨설팅을 한 상태다.

인천시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제 마련, 1회 개최하던 화이트 바이오 콘퍼런스를 국제 행사로도 열어 연 2회 개최로 확대한다.

연구 장비 구축을 통한 인증평가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화를 통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 발굴 등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바이오산업은 민선 7기와 함께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굵직한 정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총망라한 중·장기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

- 4 2021 바이오-제약 인천 글로벌 콘텍스
- 5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한 박남춘 시장